

이 책은 두 철학자의 대답을 전작 형태로 펴낸 것이다.
 첫 시도인 만큼 두 대답자의 철학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거나
 대상으로 삼은 독자층이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드러난다.
 하지만 토론이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 사회에 입말을 제대로
 살린 대답집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본격 대답집이 더욱 활발히 출간되길 기대한다.

책갈피산책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받다》

전인미답의 대답문화 향하는 무너리

휴머니스트/A5신/352면/13,000원

최성일 | 출판칼럼니스트



지난해는 이른바 '선진국형 출판장르'로 일컫는 전기물과 대답집의 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외형상으로는 이태전부터 약진을 거듭한 전기물이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내실을 다진 쪽은 대답집이다. 전기물은 여전히 번역물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답집은 참신한 국내 기획이 잇달아 선보였다.

두 사람의 대답을 전작 형태로 펴낸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받다》는 아마도 이 방면의 최초의 기획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 여적 대답 문화가 꽃 피지 않은 까닭에 대답자 섭외과정부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런 식의 댓거리에 대한 우리 학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두 대답자는 대답의 첫머리에서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간다.

두 사람의 대답을 전작 형태로 펴낸 아쉬운 기획

“우리나라의 대답집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학자들 사이의 대화가 많아야 하는데,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없었나? 그런 상태에서 바로 대답집으로 가는 건 효과 면에서 모험이지요.”(김용석)

“대답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동감합니다. 대답이라는 형식은 저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자’라고 하면 일단 ‘학술성 논문’을 써내는 사람이라고 기대하지, ‘대답’이나 ‘좌담’을 하는 사람은 학자가 아닌 ‘명사’(名士) 정도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승환)

그럼에도 두 철학자가 고민 끝에 대답에 나선 것은 철학 대중화의 일념에서다. 학계 “밖에 있는 독자들이 요구하는 ‘쉬운 글로 씌어진 철학’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철학’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대답에 응하게 되었습니다.”(이승환)

로마 그레고리안대 철학교수를 지낸 김용석은 ‘철학하는 놈’끼리 만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철학자와 철학자가 만났다는 것에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놈 자(者)’자를 좋아하거든요. 화가나 소설가처럼 일가를 이루었다는 ‘가(家)’자보다 훨씬 털털해서 좋아요.”

아무튼 두 사람은 서로 흥미로운 대화 상대를 만났다. 김용석이 서양 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대칭적 이분법’은 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양 철학자와 동양 철학자. 전직 교수와 현직 교수. 이승환은 고려대 철학과에 적을 두고 있다. 해외 장기 체류와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 경험. 이항대립적 요소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지만 이는 귀에 걸면 귀고리의 측면이 짙다. 외려 “동양 철학을 전공한 한국인과 서양철학을 전공한 한국인이 만난”(김용석) 거라는 인식이 진실에 가깝다.

대답자의 철학 제대로 드러나지 못해 아쉬워

이 책은 하마터면 나오지 못할 뻔했다. 책 말미에 덧붙여진 책임 편집자의 ‘기획일지’에는 책임 편집자가 크게 동요하는 내용이 나온다. 전인미답의 곳으로 길을 내면서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앞으로의 길 닦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번 책에서 느낀 아쉬움을 몇 자 적어본다.

우선, 두 대답자의 철학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의제 설정과 대답 사회자의 역할에서 연구가 필요할 듯 싶다. 지문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성큼 들어가기로 했다”거나 “두 시선이 교차하면서 토론은 민감한 논쟁의 양상으로 접어들었다”고 분위기를 돋우고 있으나, 정작 본문에서는 “성큼”과 “민감한 논쟁의 양상”이 와닿지 않았다.

또한, 이 책이 상정하는 독자 대상에도 의문이 들었다. 기본적인 철학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 대학생과 일반 교양인을 위한 철학 입문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개념 설명이 불충분하다. 적어도 인문·사회학부의 대학원생 수준은 돼야 책의 묘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찌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무너리로서 이 책이 지닌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